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과 저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받으라는 그 분의 진심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분의 진심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림잡아도 200만 명은 족히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무탈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연한 법칙조차도 거스르게 하는 기적적인 돌보심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안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돌이켜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 백성들과 구별하여 다루셨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암흑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듯 하였지만 애굽의 군대는 빠져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 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 판에 새겨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도록 지식적으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여 양식을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도 없고 철을 따라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 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만 생존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이 도무지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 만가지 기적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살아지는 삶을 험난한 광야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빨리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 민족이 섬기는 목석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순종과 반역에 비추어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 분의 음성을 들려 주셨고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끈질기게도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 분의 보호 아래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도 함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죄악만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저주 아래에 살다가 멸망하게 될 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야 그 죄의 문제를 내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한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